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濟州 民具類를 응용한 陶瓷表現 研究

指導教授 許 敏 子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白 昇 子

2 0 0 7

濟州 民具類를 응용한 陶瓷表現 研究

指導教授 許 敏 子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白 昇 子

白昇子の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7年 月 日

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목 차

Summary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2
II. 제주의 생활 문화에 대한 고찰	3
1. 제주의 환경적 특성	3
2. 제주의 풍토와 지역성	4
III. 제주 민구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
1. 제주인의 생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민구류의 종류	10
2. 제주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성	23
IV. 작품 제작 및 설명	44
1. 제작 의도 및 방법	44
2. 작품 설명	47
V. 결론	65
참고문헌	67

도 목차

도 1. 정낭	6
도 2. 돌담	7
도 3. 바람	7
도 4. 줌녀(해녀)	7
도 5. 초가의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	8
도 6. 탐라국 입춘 굿 놀이	9
도 7. 낭쇄(나무로 만든 소)	9
도 8. 노동요의 하나인 집줄비는 소리(집줄 놓는 노래)	9
도 9. 칠머리당 영등 굿의 영감놀이	9
도 10. 마당	11
도 11. 이문간(대문이 있는 공간)	11
도 12. 등돌	12
도 13. 춤향(띠로 물을 받는 향아리)	12
도 14. 물광(돌받침대)과 물허벅(물동이)	12
도 15. 돌절구	12
도 16. 상방(마루)	13
도 17. 정지(부엌)	13
도 18. 두지(뒤주)	14
도 19. 다듬잇돌	14
도 20. 애기구덕(요람)	14
도 21. 등잔과 등잔걸이	14
도 22. 갈중이(갈옷)	16
도 23. 줌녀복(해녀복)	16
도 24. 도롱이(비옷)	16
도 25. 가죽버선	16
도 26. 풀고래(물맷돌)	18
도 27. 연자매(연자방아)	18
도 28. 살레(찬장)	18
도 29. 장항굽(장독대)	18

도 30. 씨레	20
도 31. 웨따비와 쌍따비	20
도 32. 지계	20
도 33. 씨부게(씨앗주머니)	20
도 34. 열맹이(곡식분리 도구)	20
도 35. 테우(통나무배)	22
도 36. 테왁망사리	22
도 37. 문어단지(문어광주리)	22
도 38. 수경, 빗창, 성계골각지	22
도 39. 대정현의 돌하르방(대정읍 보성리)	28
도 40. 제주현의 돌하르방(제주대학교)	28
도 41. 정의현의 돌하르방(표선면 성읍리)	28
도 42. 방망이를 든 동자석(조천읍)	29
도 43. 꽃을 든 동자석(표선면)	29
도 44. 홀을 잡은 동자석(제주시 아라동)	29
도 45. 새부리모양의 방사탑(한경면 용수리)	29
도 46. 남두연대(외도와 애월 연결)(애월읍 구엄리)	29
도 47. 애월포의 도대불(애월읍 애월리)	29
도 48. 항(항아리)	33
도 49. 장태(항아리뚜껑)	33
도 50. 허벅	33
도 51. 웃데기허벅	33
도 52. 대바지	33
도 53. 술허벅	33
도 54. 고소리(소줏고리)	33
도 55. 장군	33
도 56. 멜칫단지(멸젓단지)	34
도 57. 자라뿔(자라모양의 휴대용 물병)	34
도 58. 양념단지	34
도 59. 시리(시루)	34
도 60. 지세허벅	34
도 61. 약탕관	34

도 62 오지연적	34
도 63. 수저통	34
도 64. 남방에	37
도 65. 도고리	37
도 66. 남신(나막신)	37
도 67. 궤(반닫이)	37
도 68. 떡본(떡살)	37
도 69. 솔박	37
도 70. 가마솔	40
도 71. 보습	40
도 72. 다리미	40
도 73 양손운디(인두)	40
도 74. 자물쇠	40
도 75. 날라리(호적)	40
도 76. 망텡이	43
도 77. 짚방석	43
도 78. 동고량(도시락주머니)	43
도 79. 푸는체(키)	43
도 80. 정동벌립(정당벌립)	43

작품 목차

작품 1. 민구(民具)이야기- 솔과 정지방석	47
작품 2. 민구(民具)이야기- 다듬잇돌	49
작품 3. 민구(民具)이야기- 물허벅	51
작품 4. 민구(民具)이야기- 태와	53
작품 5. 민구(民具)이야기- 맷돌	55
작품 6. 민구(民具)이야기- 정낭과 방아	57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 등잔과 살레(1)	59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 등잔과 살레(2)	60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 등잔과 살레(3)	61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 등잔과 살레(4)	62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 등잔과 살레(5)	63

Research on Expression of Artifact Applied From Jeju Folk Crafts

Baek, Seung-ja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uh Min-ja

Summary

The volcanic Island of Jeju has developed its unique traditions and culture due to its geographical and climatic features. A diversity of its folk crafts which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mainland of Korea reflect strongly the island's aboriginality and locality.

The folk crafts manufactured and refined through time-honored techniques and experienc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re simple, rustic, and roughly carved while holding the beauty of the Island's nature, tradition, and culture and permeating the vibrant lifestyle of Jeju islanders.

The folk crafts which were mainly crated for the practical use, yet still exhibit the simplicity and naivety of arts represent the

tenacity of Jeju islanders who were undaunted by their harsh life and sought to live in harmony with nature.

I believe they are invaluable cultural assets that I can get wisdom in our lives of the modern day by showing our predecessor's whole lives.

Thanks to the advent of various mass media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s, Jeju's tradition and customs have become diversified. And it is very hard to have something extra that can reflect on characteristics and identities of our culture because of modernization and the advance of science.

Although living in a rapidly modernized and westernized era, it seems that human beings are in nature prone to nature loving . So, we miss the past. Because the wisdom and sentiments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ere melt into them. Naturally, they let us remind our nostalgia.

This paper explores the tradition, lifestyle and cultural legacy of Jeju islanders who have weathered such harsh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ir tenacity and wisdom. Specifically, the purpose of study is to attempt to create clay works by identifying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folk crafts.

In addition, this paper also aims to search for Jeju's authentic color, unique identity and missing sensitivity while looking back on the lives of ancestor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화산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풍토적인 환경은 제주만의 고유한 생활민속 문화를 갖게 하였고 이에 따른 민구류(民具類)의 종류도 육지와는 다른 제주만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여 사용해 왔던 민속품들 즉, 민구(民具)는 그 형태의 근원이 풍토에서 비롯되었지만 소박하고 검소하며 절제되어 있어 제주인들의 생활문화가 짙게 깔린 향토적인 미(美)를 담고 있다.

이러한 민구류들은 실용성(實用性)을 우선으로 하는 질박한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고 척박한 자연과 격랑(激浪)의 역사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옛 선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여줌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귀중(貴重)한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오늘날 많은 매스미디어의 출현과 교통의 발달로 제주의 전통과 풍습은 다 변화되고 있으며 근대화, 과학화라는 과제에 밀리어 우리문화의 고유성, 정체성을 돌이켜 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서구화되고 현대화 된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감성(感性)은 인간 본연의 자연 친화적인 것이어서 늘 옛 것을 그리워하게 마련이다. 이는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와 정취가 그 안에 깃들여 있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향수(鄉愁)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혜와 슬기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선조들의 전통과

생활상을 돌아보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왔던 각종 민구류들의 형태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제주의 향토적인 미를 찾아 이를 점토작업과 연결시켜 조형표현을 시도해 보고자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 조상들의 삶의 단편들을 기억하고 제주적인 감성과 형태 및 색채의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제주의 민구류를 소재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의 생활과 민속을 살펴보고 제주인들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던 민구류의 특징과 종류들을 문헌과 답사를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성과 향토성에서 제주의 미를 탐색한다.

셋째, 소지는 산백토와, 조합토를 사용하며 판 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기법, 코일링 기법으로 제작하고 작품에 따라 양각, 투각 기법 등을 이용하여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형태 및 질감을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 유약은 제주의 향토적인 색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물 전체에 제주토를 넣어 만든 흑화장토를 시유하여 어두운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고 주제가 되는 부분은 색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색유리 조각 등을 사용하여 강하게 엑센트를 주면서 이미지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소성은 1250℃로 재벌구이 하고 작품에 따라 3차 소성을 한다.

다섯째, 민구류를 사용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토우의 형태로 만들어 붙임으로서 장식성을 주는 한편 그들의 삶의 단편들을 돌아보며 제주의 감성과 향토성을 형상화해 보고자 한다.

II. 제주의 생활 문화에 대한 고찰

1. 제주의 환경적 특성

제주도는 신생기(新生期) 제3기에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한 조면암(粗面岩)이 원래의 기반인 화강암(花崗岩)을 덮고 다시 제4기에 현무암(玄武岩)이 분출(噴出)하여 얇게 덮임으로서 생성된 화산섬으로, 여러 번에 걸친 화산 활동 끝에 맨 마지막에 분출한 현무암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제주도 동서남북 사면의 모양은 거북의 등과 같이 경사가 완만하며 중앙에 한라산이 높이 솟아있고 비탈면을 따라서 350여 개나 되는 기생 화산이 흩어져 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에 비하여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계절별로 날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해발 고도에 따라 기후차이가 크다.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지질은 거북등처럼 갈라진 절리(節理)와 균열(均裂)이 많은 화산암(火山巖)이어서 표토(表土)가 얇기 때문에 비가 오면 대부분은 투수성(透水性)이 강한 현무암 지질인 지하로 스며들어 비교적 많은 강우량(降雨量)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거의 대부분 건천(乾川)상태가 되어 메말라 있다. 비가 내릴 때에만 물이 흐른다.¹⁾ 이렇게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은 지하수가 되어 해안가에서 샘물로 솟아나는데 이러한 용천수(龍泉水) 가까운 해안가에 사람들이 모여 취락(聚落)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적 조건 때문에 물이 고이거나 내(川)를 이루지 못하므로 물이 부족하고 토질이 척박하여 논농사 대신 채소, 고구마, 유채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면으로 둘러싸인 바다에서의 어로(漁撈) 작업이 생계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 이문원, 「제주 화산도의 지질(地質)과 암석(巖石)」, 도서출판 춘광, 1991

2. 제주의 풍토와 지역성

풍토(風土)는 지역색(地域色)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지역을 한 국가 내의 지방으로 나누든, 대륙내의 국가나 민족의 관계로 분류하든 지역성은 최종적으로 문화적 색채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전통문화를 특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리·풍토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그 민족의 가치관이 날과 울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성은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표지(標識)역할을 한다.²⁾

제주도는 바다로 에워싸인 절해의 고도(孤島)이다. 거기에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해있어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 많은 기후와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풍토적 요건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백제에의 조공과 섬김, 왜구들의 침탈, 1세기에 걸친 몽고의 지배, 정객들의 유형지로 이용되는 등 끊임없는 수난을 당해왔던 제주인들은 강인 불굴의 의지로 이러한 악조건들을 이겨내었으며 그로 인하여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제주의 민속권(民俗券)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식주는 물론, 신앙, 세시풍습 등이 독특하고 고어, 신화, 전설, 민요 등 구비전승(口碑傳承)이 풍부하며 이러한 지역문화의 특성은 옛 탐라국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유적들에서는 물론 민속(民俗)과 정신 문화에서도 개성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제주의 풍토적 특성으로 인한 제주의 독특한 지역성의 특징들을 현춘식은 「제주도의 민속 예술」에서 도서문화성(島嶼文化性), 서민문화성(庶民文化性), 고유문화성(固有文化性)으로 집약하여 표현하고 있다.³⁾

2)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3

3)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 76, 제주도, 1979

1) 도서문화성(島嶼文化性)

섬이라는 지리·풍토적 조건에 의하여 발달해 온 문화는 그 특성상 대륙과의 문화 교류가 적어 특수성을 지니게 마련이며 다양하면서도 왜소한 경향을 띠게 된다.

제주도의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걸쳐 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고유한 문화적 토양 위에 기초를 지키다 유배되어 온 선비들의 자립(紫笠), 자조(自助), 명예(名譽)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영향을 받아 특이한 민속 문화로 일구어 졌다.

이렇게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도서문화성’은 제주 사람들의 주거생활 뿐만 아니라 제주 여인네들의 끈질긴 생활력으로 상징되어 온 줌녀(해녀)들의 삶의 문화, 또는 소와 말을 방목(放牧)하여 키웠던 축산 문화 등 생계를 이루는 여러 면에서도 짙게 나타나고 있다.

(1) 삼무(三無)

제주에는 삼무의 섬이라고도 불리어져 왔다. 이것은 도둑, 대문, 거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인들은 거칠고 척박한 자연환경을 개척하기 위해 근면, 절약,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았으며 좁은 섬 안에서 서로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거나 구걸을 하지 않아 도둑과 거지가 없었으며 대문도 없이 살았다.

다만 집주인이 일터로 나갈 때 사람이 없다는 표시로 집 입구에 3개의 정남을 걸쳐 놓으면 그만이었는데 정주석에 한 개만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잠깐 외출한 것으로, 두 개가 걸쳐져 있으면 좀 긴 시간 외출했다는 신호로, 세 개가 다 걸쳐져 있으면 종일 출타 중이라고 알았다.(도1)

또한 이러한 정주목은 마을에서 방목되고 있는 소와 말들이 들어와 마당에 널려진 곡식이나 우영(텃밭)에 심어진 채소, 묘종들을 먹어치울 염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도1.

하나도 걸쳐있지 않은 정낭

두개가 걸쳐있는 정낭

세 개가 다 걸쳐있는 정낭

(2) 삼다(三多)

예로부터 제주에는 삼다의 섬으로도 불리어져 왔다. 원래 삼다는 풍다(風多), 수다(水多), 한다(旱多)를 말했다고 하나 석다(石多), 풍다(風多), 여다(女多)를 의미하기도 한다.

돌이 많다(石多)는 것은 한라산의 화산활동에서 연유한 것이며(도2),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해 있어서 바람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도3). 바람과 돌은 제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어 술한 돌덩이를 치워가며 밭을 개간하여야 했고 혼한 돌들을 이용해 돌담, 갯담, 성담 등을 쌓았으며 고인돌, 방사탑, 연대, 도대불(등대) 등 많은 돌 문화 유산들을 남기고 있다.⁴⁾

여자가 많다(女多) 라고 함은 원래 제주의 남자들이 바다로 나가서 어로작업 중 많이 조난, 사망하여 여자가 수적으로 많았던 데서 연유하기도 하였으며 제주의 생활환경이 각박하여 여자들도 남자와 함께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서도 연유되었다고 본다. 제주여성들은 집안 일 뿐만 아니라 밭농사는 물론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근면하게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바다를 또 다른 생업의 터전으로 삼았던 줌녀(해녀)(도4)는 생활력이 강한 여다(女多)의 섬 제주를 표상하는 이름이기도 하였다.

4)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연구소, 2003



도2. 돌담



도3. 바람



도4. 줌녀(해녀)

2) 서민문화성(庶民文化性)

제주도의 지리적, 기후적인 자연 환경은 제주인들로 하여금 척박한 땅을 갈고 거친 바다를 다스리며 스스로 일어서려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은 부(富)를 축적하기보다는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 조냥정신을 갖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형성되어진 서민적 생활문화는 제주인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의 삶 자체를 타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함을 지니게 만들었다.⁵⁾

제주도의 가족은 한울타리 내의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도5)에서 부모세대와 아들세대가 생활하면서도 대개의 경우 두 가족은 생산, 소비, 취사를 분리하여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연로해져 노동력이 상실되더라도 농토의 소유권을 부모가 가진 채 경작은 아들부부가 담당하는 일이 많았으며 농토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의 일부는 부모가 별도로 간직하여 소비생활이나 취사도 따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앞일을 예측키 어려운 섬 생활이라는 악조건을 견딜 수 있는 개인적이

5) 제주도, 「제주의 민속IV-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문화자료총서〉 4, 1996

고 독립적인 경제생활 방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거의 다 가난했지만 비슷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서민문화를 이루었다.



도5. 초가의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

3) 고유문화성(固有文化性)

제주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입지적 조건으로 새로운 중앙문화가 늦게 들어와 타 지역으로부터의 문화적인 영향이 적었고 그로 인하여 제주 고유의 옛 문화를 변색됨이 없이 고스란히 이어오게 되었다.

제주도는 태초에 개국설화를 갖고 있을 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고을마다 얽힌 신화와 전설이 독특하고 마을의 안녕과 농경, 어로 등의 공동작업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무속적 의례로서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의 대상물을 의지 처(處)로 삼았던 샤머니즘이 발달하였다.⁶⁾

농경의례의 하나로 축제를 벌였던 ‘입춘 굿 놀이’는 입춘 날 낭췌(木牛, 나무로 만든 신성한 소)를 만들어 부정을 막는 고사를 지내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빌었던 대동(大同)놀이로서 고대 문화성이 잘 보존되어 온 예이다.(도6,7)

또한 제주의 노동요(勞動謠)는 노동의 고달픔을 잊기 위해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불렀는데 농업(農業)노동요, 제분(製粉)노동요, 어업(漁業)노동요, 임업(林業)노동요, 잡역(雜役)요 등 일의 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난다.(도8)

6) 조성윤·하순애·이상철 공저,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그 외에도 ‘바람의 신’인 영등 신들을 맞이하여 바다에서의 안녕을 비는 ‘영등 굿 놀이’ 아직도 행하여지고 있으며(도9) 제주어의 보존 등은 고어(古語)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⁷⁾



도6. 탐라국 입춘 굿 놀이



도7. 낭췌(나무로 만든 소)



도8. 노동요의 하나인 집줄비는 소리(집줄 놓는 노래)



도9. 칠머리당 영등 굿의 영감놀이

7) 「제주의 민속」, <제주도> V, 1998

III. 제주 민구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제주인의 생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민구류의 종류

제주인들은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옷, 음식, 주거 도구 등의 생활용구들을 많이 만들어 내었는데 이러한 독특한 풍습은 육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제주도의 의·식·주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서민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도서문화성(島嶼文化性), 서민문화성(庶民文化性), 고유문화성(固有文化性)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제주의 전통문화가 제주인의 생활 모습과 그 속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던 민구(民具)들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의(衣), 식(食), 주(主)생활에 따른 민구류의 종류를 분류하여 알아보고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제주의 주생활과 민구류

제주 전통민가에는 대문이 없다. 그 대신 집으로 들어오려면 구부러진 진입로를 지나 정주석과 정낭이 있어 대문역할을 한다.

마당에 들어서면 초가(草架)주위로 우영(텃밭), 통시(재래식화장실), 눌굽(남가리), 장항굽(장독대)), 이문간(대문이 있는 공간)이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마당은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있어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농(農)작업을 하거나 갖가지 가정의례가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였다.(도10) 마당 한편에는 ‘우영’이라 불리는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생산하거나 제수용 과일나무, 갈옷을 만들기 위한 감나무, 죽제품을 만들 대나무 등을 심어 사시사철 자급자족(自給自足) 하였고 옆 울담에 덧붙여 통시(화장실)를 만들었다.⁸⁾ 또한 이문간(대문이 있는 공간)에는 외양간의 소거

름이나 화장실의 돼지거름을 지고 날랐던 바지계(지계)를 놓아두기도 하고 텃밭에 심을 옥수수 종자를 매달아 두기도 하는 곳이었다.(도11)



도10. 마당



도11. 이문간(대문이 있는 공간)

이러한 마당 곳곳에는 등돌, 춤항(띠로 물을 받는 항아리), 물팡(돌받침대)과 물허벅(물동이), 돌절구 등이 놓였다.

(1) 등돌

넷가나 바다에서 주워온 둥근 달 모양의 단단한 큰 돌로(도12), 주로 남자 어른들이 마을 어귀나 공터에서 돌을 들기 시합하여 힘자랑을 하였다.⁹⁾

(2) 춤항(띠로 물을 받는 항아리)

활엽수의 중간에 띠를 댕기처럼 땡아 내려 떨어지는 빗물을 모았던 것으로, 띠를 '춤'이라 하고 물을 받기 위해 놓아 둔 항아리를 '항'이라고 하였다.(도13)

(3) 물팡(돌받침대)과 물허벅(물동이)

물팡은 물허벅을 담은 구덕(대바구니)을 질 때 사용하는 돌 받침대로, 선 채로 물허벅을 질 수 있게 만들어 졌으며(도14)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올 때는 자칫 돌에 채이거나 허벅이 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물구덕에 담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물배'라는 끈으로 쳐서 날라 와 부엌의 물항

8) 「제주문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4

9)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 제주시교육청, 장학자료('91-IV), 2001

(물을 보관하는 항아리)에 채웠다.¹⁰⁾

(4) 돌절구

현무암을 사용하여 오목하게 만들어 곡물을 찧을 수 있도록 만든 절구통으로, 탈곡한 곡식의 알곡을 내거나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였으며 필요시엔 옮겨 다닐 수 있어 편하였다.(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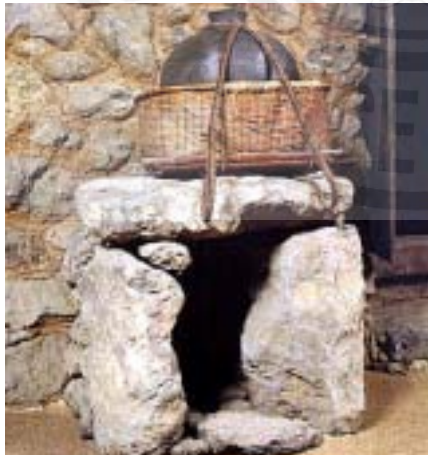
이외에도 풍채(차양), 돌방에(돌방아), 항(항아리), 지게, 연자매(연자방아) 등이 있다.



도12. 등돌



도13. 촌항(띠로 물을 받는 항아리)



도14. 물평(돌반침대)과 물허벅(물동이)



도15. 돌절구

10)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2)」, 열화당, 1981

상방(마루)은 제사, 관혼상제, 가족집회, 손님접대, 식사, 가사일 등이 이루어지는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도16), 상방을 중심으로 내부공간을 배치하였다.

구들(방)은 가장이 거처하면 ‘큰 구들’(큰방), 다른 방은 ‘작은 구들’(작은방)이라 불렀으며 굴묵(온돌)을 놓아 방을 따뜻하게 하고 큰 방 뒤에는 고팡(창고)이 있어 곡물이나 식품을 보관하였다.

또한 상방의 뒷벽 양옆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장방(창방)이 있었으며 정지(부엌)에서는 화덕위에 솥을 걸쳐 밥을 지었다.(도17)



도16. 상방(마루)



도17. 정지(부엌)

이러한 주생활(住生活) 공간인 상방에는 두지(뒤주), 다듬잇돌 등이 놓였으며, 구들에 들어서면 애기구덕(요람), 등잔 등을 볼 수 있다.

(1) 뒤주

곡물 저장 용구로, 쥐와 습기를 피하기 위한 발 뒤주와 통 뒤주 등이 있으며 많은 양을 넣는 커다란 것과 깨나 좁쌀 등을 넣는 작은 것이 있다.(도18)

(2) 다듬잇돌

옷감을 다듬을 때 밑에 받쳐 놓는 직사각형(長方形)의 돌로, 윗부분은 넓게 하고 밑면의 양쪽에는 들어 옮길 수 있도록 홈을 파 놓았으며 다듬이 방망이는 박달나무로 길고 둥글게 깎아서 만들었다.(도19)

(3) 애기구덕(요람)

대로 엮어 만든 장방형의 아기를 눕혀 채우는 바구니로, 구덕의 밑은 흔들기 좋게 삼동나무를 깎아 구부려 앞과 뒷부분에 받쳐주기도 하였다.(도20)

(4) 등잔

심지를 넣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잔걸이에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등잔걸이는 상단부에 툽니형의 계단을 만들어 높낮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도21)

이외에도 돌화로, 문갑, 궤, 부섭(돌화로), 재떨이 등이 있다.¹¹⁾



도18. 두지(뒤주)



도19. 다듬잇돌



도20. 애기구덕(요람)



도21. 등잔과 등잔걸이

11) 한국민속문화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2) 제주인의 의생활과 민구류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살아야 했던 제주사람들에게 옷은 일하기 편하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또한 옷감으로는 무명과 명주 그리고 삼베가 있었으나 제주에서는 무척 귀하였다.

옷은 종류가 많지 않아 방의 벽에 대나무로 만든 ‘헛대’를 만들어 옷을 걸치거나 벽장 위에도 꿰나 함을 올려놓고 그 속에 옷을 보관하였다.¹²⁾

이러한 제주인의 의생활(衣生活)에 필요했던 제주의 옷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갈중이(갈옷)

감물을 들여 통기성이 좋고 땀이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무엇보다 따로 풀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뽀뽀함이 오래 가고 때가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많이 입었다.(도22)

(2) 줌녀복(해녀복)

무명이나 광목을 사용하여 대각선 구조로 만들었으며(도23) 조각난 형꼴을 이어도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고 젖은 옷을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입고 벗기가 편하게 품 조절 여유의 공간이 되는 옆트임이 있다.¹³⁾

(3) 붓뒤창옷(초생아옷)

삼베로 만들어 통풍이 잘되며 붓뒤창옷, 붓뒤적삼, 베옷, 삼칠일옷, 베창옷이라 불렀으나 대부분 ‘붓뒤창옷’으로 통칭 되었다.

(4) 목자복(牧者服)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들어 목자(牧者)들이 입었던 옷으로, 머리에는 가죽감티, 털병것, 정당벌립, 대패랭이를 썼으며 가죽두루마기와 도롱이(비옷)(도24), 솜옷, 누빈 바지저고리를 입고 가죽버선(도25)과 가죽발레를 신었다.

사냥복, 예복, 그리고 부(富)의 상징으로도 착용하였다.

12) 고복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1989

13)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5) 혼례복

남자는 관복을 입고 머리에 사모(紗帽)를 썼으며 여자는 깃과 고름 또는 앞섶에 부분적으로 홍색계통을 이용하여 만든 장옷을 입고 짚신이나 고무신을 신었으며 원삼과 족두리에 용비녀를 꽂았다.

(6) 호상옷(사후 의례복)

윤년이나 윤달 또는 환갑을 기해서 만들었는데 명주와 삼베 외의 직물은 금기 하였으며 매듭을 맺거나 상침질, 뒷바느질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¹⁴⁾



도22. 갈중이(갈옷)



도23. 줌녀복(해녀복)



도24. 도롱이(비옷)



도25. 가죽버신

14) 김영돈·고광민 공저,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1998

3) 제주인의 식생활과 민구류

제주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였으나 언제나 먹을 게 귀하여 산, 바다, 밭, 돌 등에서 생산되고 채취된 것을 제철에 섭취하였다.

조리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양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껴서 꼭 먹을 만큼씩만 만들었다.

일이 많다보니 시간이 없어 되도록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주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 만드는 것이 별로 없으며 밥상 차림은 대부분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젓갈, 된장, 생나물이나 익힌 나물 한 두 가지가 기본이었다.¹⁵⁾

정지세간(살림도구)은 돌을 재료로 만든 게 많은데 돌방에(돌방아), 풀고래(물맷돌), 연자매(연자방아)를 사용해 곡식을 갈았고 물은 물허벅(물동이)과 촘항, 물항(물항아리)에 보관하였으며 음식은 오지그릇에 넣어 살레(찬장)에 두었다. 특히 물허벅(물동이), 장항굽(장독대), 물항(물항아리), 씨앗보관항(씨앗보관항아리), 고소리(소줏고리)등의 용기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생활도구였다.¹⁶⁾

(1) 풀고래(물맷돌)

위쪽의 구멍으로 곡물을 집어넣어 두 쪽의 돌을 돌리면 아래쪽 틈으로 갈려 나오게 만들어졌는데 젓은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였다.(도26)

(2) 연자매(연자방아)

둥근 돌을 놓은 위에 나무 테를 씌워 말이나 소에 걸어 사람이 마소고삐를 잡고 끌게 하는 곡물가공 도구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곡식을 탈곡(脫穀), 제분(製粉)할 때 사용하였다.(도27)

(3) 살레(찬장)

각 칸마다 대나무발로 층을 만들어 문을 달아 통풍 및 습기를 예방하였던

15) 김지순,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문화, 2001

16) 고헌민, 「제주인의 삶과 돌」, <제주학> 제3호, 1999

식기를 보관하는 수납장으로, 부엌 뒤편에 놓아 사용하였다.(도28)

(4) 장항굽(장독대)

된장, 간장 등을 담은 각종 항아리들이 놓여있는 곳으로, 부정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엌 뒤쪽의 폐쇄적인 공간에 놓였다.(도29)



도26. 풀고래(물맷돌)



도27. 연자매(연자방아)



도28. 살레(찬장)



도29. 장항굽(장독대)

4) 기타

(1) 농기구

제주의 농토는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흙이 가벼워 바람에 날리기 쉽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농사 때 씨앗을 뿌리고 난 뒤, 씨앗이 흙에 밀착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마소 떼를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의 발로 직접 밟아 주곤 하였는데 이것을 '밭 툄린다'고 하였다.¹⁷⁾

이러한 농기구에는 씨레, 따비, 바작(바지계), 씨부게(씨앗주머니) 등이 있다.

① 씨레

쟁기질한 후 흙덩이를 부수고 삶는 도구로, 사람이 올라타거나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소로 끌어서 사용하였다.(도30)

② 따비

머리와 발받침이 전체적으로 T字형을 이루며 주걱처럼 생긴 '웨따비'와, 전체적으로 포크나 코끼리 이빨처럼 생긴 '쌍따비'로 나누어지며 척박한 땅을 일구는데 사용되었다.(도31)

③ 지계

등짐으로 지고 운반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로, 바작(바지계)이나 운반해야 할 것을 엮을 수 있는 가지와 어깨로 뿔 수 있도록 친(끈)을 연결하였으며 작대기를 받쳐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도32)

④ 씨부게(씨앗주머니)

짚이나 미(억새의 속 줄기)를 사용하여 만든 도구로(도33), 쥐의 피해와 습기를 막기 위해 높은 곳에 매달아 보관하였다.¹⁸⁾

⑤ 얼메이(곡식분리 도구)

떡가루나 고운 것을 칠 때는 '좁진채'(구멍이 작은 채)를 이용하였으나 곡식을 수확해 장만할 때는 알곡과 거친 대를 구분하기 위해 '구멍이 큰 채'를

17) 고헌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18)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2004

사용하였다.(도34)

이외에도 돌테, 망텅이, 방어(곰배), 골체, 골갱이(호미)등이 있다.



도30. 씨레



도31. 웨따비와 쌍따비



도32. 지계



도33. 씨부계(씨앗주머니)



도34. 얼맹이(곡식분리 도구)

(2) 어로기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산물이 풍성하게 산출되는 바다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제주인들에게 있어 바다는 마을 공동의 밭(田)이면서 또 하나의 생업(生業)의 터전이었다.

제주인들은 테우(통나무배)를 타고 사돌(그물)과 문어단지(문어광주리)를 이용해 해산물을 캐거나 자리돔을 잡았고 옥돔이나 갈치 잡이에는 돛단배를 사용하였다.

해녀들은 태왁, 족세눈(수경), 호미, 빗창, 성계골각지로 바다의 어류나 해산물을 채취하였다.¹⁹⁾

① 테우(통나무배)

구상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돛과 돛대가 없는 통나무배로, 노와 그물을 배의 옆에 달고 해조류를 캐거나 자리돔을 잡았으며 먼 바다를 오가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도35)

② 문어단지(문어광주리)

토기나 도기로 만들거나 싸리나 참대 껍질, 버들가지를 엮어 만들어 썼던 단지 모양의 도구로 문어를 잡는데 사용하였다.(도36)

③ 태왁망사리

잘 여문 박 속의 씨앗을 빼내어 가볍게 만들어져 물위에 뜨는 용구로, 해녀들이 바다 작업을 하고 나와 몸을 의지하였는데 해산물을 담을 수 있는 망사리를 달고 빗창과 작살(소살)을 꼽아 놓기도 하였다.(도37)

④ 족세눈(수경)

물속에서 끼는 안경으로, 해녀들은 왕눈이나 큰 눈으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안경을 끼고 작업을 하였다.(도38)

⑤ 빗창

전복 등을 떼어낼 때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납작한 모양에 머리는 원형으로

19) 고광민, 「어구(漁具)」, 도서출판 각, 2002

말아졌고 구멍에 손잡이 끈이 달려있다.

⑥ 성게골각지

어패류를 채취할 때 쓰는 도구로, 성게를 따내기도 하고 문어를 잡을 때도 사용하였다.²⁰⁾



도35. 테우(통나무배)



도36. 문어단지(문어광주리)



도37. 테왁망사리



도38. 수경, 빗창, 성게골각지

20)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1

2. 제주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성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자연의 여러 가지 형상들은 의도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변화들로 우리들을 감동하게 만든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재료들을 얻어오고 그 형상들을 모방하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왔는데 이러한 눈과 손의 작용을 통한 시각적, 촉각적 경험을 하는 표현의 과정은 하나의 조형예술품을 탄생시키며 자연스럽게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조형물들은 그 시대적 상황과 조형의지를 반영하게 되며 어느 민족의 경우나 예외 없이 풍토적 조건 속에서 민족의 생활감정과 정서가 농후하게 깃들어 나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형 활동은 오랜 세월 동안 풍토, 종교, 사상, 관습, 언어 등의 미의식의 영향을 받아 그 지역만의 고유한 형태와 색채를 갖게 되며 삶의 자세를 형성시킨다.

그렇다면 제주인의 미의식(美意識)은 무엇일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이다. 그러나 자연은 광풍노도(狂風怒濤)로 인간을 위협하기도 하는 절대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신(神)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헤쳐 나가지 않으면 생(生)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제주인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탄생되었던 많은 조형물들은 기교와 장식이 배제되어 있고 단순하고 남성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인위적인 가공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는 절제(節制)의 미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외관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였으며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되려는 자연주의의 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근본적인 조형의식은 무심의 심(心), 무태의 태(態), 무유의 유(有), 무주의 주(住)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적 개념들이 화(和)를 이루며 담백하고 질박하게 표현되어져 있다.²¹⁾

이러한 자연에 대한 순응과 겸손, 기능에 충실한 비장식성, 색상을 초월한 거칠고 남성적인 표현 등은 험난한 역사를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속에서 녹아 일구어진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인의 미의식은 서민들의 생활모습 속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민구류들에서 잘 보여 지고 있다.

1) 향토미(郷土美)

예술에 반영되는 그 지방의 기후, 색채, 민속, 사상, 감정 등의 특성을 담은 특색 있는 지방색(地方色)을 ‘향토미’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향토미는 제주적(濟州的)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제주에 관한 모양’, ‘제주다운 상태’, ‘제주의 성질을 띤’, ‘제주다운’이라는 향토적(鄉土的)의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돌이 많은 제주에서는 곳곳에서 돌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연질(軟質)인 현무암이 가공하기 쉬워 많은 조형물들이 제작되어진 때문이다.

자연의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유머가 있는 돌하르방이나 동자석의 모습들은 소박하고 투박한 가운데 인위적인 것이 배제된 담백함을 담고 있어 제주의 고유한 향토미가 살아있다.

이외에도 퀘나 목공예품에서 보여지는 단순하고 자연의 결을 살린 민구류들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살아있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며 허벅이나 향아리들에서도 장식이 절제된 제주옹기 본질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이는 제주의 풍토(風土)와 제주인들의 삶의 일상속에서 만들어진 향토미의 세계라 할 수 있다.

2) 색감(色感)

제주도는 무속신앙이나 신당, 사찰 또는 관아 밖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명절이나 혼인 때 말고는 색(色)있는 옷이 허용되지 않

21)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았다. 제주인들에게 있어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색깔 있는 옷은 사치에 불과 하였으며 광목천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을 지어 입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민구류들은 그 재료 자체의 결이나 색상을 그대로 살려 사용하였으며 굳이 색상을 입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에서 보여지는 색(色)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산과 바다 그리고 꽃과 나무에서 그 화려함을 찾을 수 있으나 민구류들에서는 돌, 나무, 무명(무명실로 짠 옷감) 등의 고유한 색상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는 꾸밈이 없고 소박하고 실용적인 제주인들의 정서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형태미(形態美)

제주 민구류의 형태는 투박하고 남성적이다. 과감하게 단순화시켜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았다. 그래서 선들은 힘차고 진취적이며 형태 또한 단단하며 유약(幼弱)하지 않다. 또한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뤄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왔던 제주인들의 삶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록 그 형태나 색감이 우아하고 품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고자 노력했던 우리 조상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자연성(自然性)은 곧 ‘질박미(質朴美)’를 뜻한다. 김원룡은 한국미술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을 ‘자연주의’로 보았으며 ‘무조화의 조화(造化)’, ‘무기교의 기교(技巧)’일 때 그 조화의 상태나 효과를 ‘멋’이라고 하였다.²²⁾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제주적인 향토미, 색감, 형태미들이 민구류들에서 어떠한 ‘멋’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민구류를 만들었던 재료별로 나누어 보았다.

22) 김원룡, 「한국미의 연구」, 열화당, 1978

(1) 돌을 이용한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 표현

제주의 돌은 검은빛 다공질(多孔質) 현무암으로 가볍고 연질이어서 제주 사람들의 의·식·주생활에 필요한 생활용구, 또는 농업·어업·축산 등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용구, 뿐만 아니라 운반·통신·방어시설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졌다.

구석기 시대부터 그 사용된 유물들을 볼 수 있으며 각종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화산섬인 제주도가 삶의 환경은 척박하였으나 섬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제주인들의 삶과 더불어 면면히 그 역사를 이어오면서 돌의 생활문화를 창조해 왔던 것이다.

구석기 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돌로 만든 선돌을 세웠다. 선돌은 어떤 믿음의 대상물이었는데 세월을 거치면서 돌하르방과 같은 장승이 되거나, 돌탑과 미륵으로 새로 태어났다. 또한 많은 고인돌을 세워 아직도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³⁾

돌하르방은 방사탑과 아울러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온 마을의 지킴이였을 가능성이 많은 데 성 내의 수호신적 기능, 주술 종교적 기능, 그리고 위치 표식 기능을 했던 것으로 육지부의 장승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도39,40,41)

제주 돌하르방 원래의 이름은 우석목, 벽수머리였으나 1971년 돌할아버지의 제주어로 ‘돌하르방’이란 명칭이 채택되면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 형태가 읍성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구멍이 송송 난 검은 현무암에 부리부리한 큰 눈매를 하고 자루병 같은 코와 짝 다문 입술에 감투를 썼고, 두 손은 배에 나란히 모아 위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등신(二等身)으로 조각되어 있다.

돌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뜻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진 환경에서 한평생을 보낸 우리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있어 제주사람들의 표상

23)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인 동시에 신앙, 생활, 노동과 예술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제주의 화산석 그 자체가 만들어 낸 오묘한 자연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동자석(童子石)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의 좌, 우편에 2기나 4기를 서로 마주보거나 나란히 하여 세웠으며 묘지의 수호신, 영혼의 시중꾼, 영혼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벗으로써 죽은 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살았을 때 좋아했던 술, 떡 같은 음식물이나 꽃, 창과 같은 상징물 등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도42,43,44)

술가락은 영혼이 식사하는 모습을 말하며, 붓은 가르침을, 술잔과 술병은 예(禮)를 갖춰 시중드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채는 선비들의 풍류를, 뱀은 집과 마을의 수호신을 상징하며, 새는 신의 심부름꾼으로 영매(靈媒)라 불리었으며, 꽃은 환생(還生)을 의미하며, 홀(笏)은 문신(文臣)을, 칼과 창, 방망이는 수호적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동자석은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웃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표정은 아이를 닮은 단순하고 소박한 얼굴 그 자체로서 천진함을 머금은 미소(微笑)속에서 사후(死後)의 세계를 해학(諧謔)적인 요소로 그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제주의 방사탑(防邪塔; 거옥, 거옥대)은 육지부의 솟대가 갖는 농경의 의미보다는 나쁜 것을 막는 ‘액막이’ 기능이 강하였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기가 허(虛)하다고 믿는 곳에 세워두며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며 전염병의 예방, 화재예방, 해상의 안전과 함께 아이를 낳게 하고 보호해주는 방사의 역할을 하였다.(도45)

제주도에는 17기가 있는데 탑 위에는 선돌(탑 윗돌)을 얹어 놓거나 석인상이 들어서기도 하고 새의 형상을 한 솟대를 얹어놓은 복합적 형태로 존재한다.²⁴⁾

또한 제주의 방파제 끝이나 포구에는 의례히 돌로 등대를 짓고 각지불(등잔의 종류)로 불을 밝히거나 불을 피워 신호를 하였던 돌로 지은 ‘연대(烟臺)’가 있거나(도46) 돌로 지은 등대 일명 ‘도대(道臺)불’(등대)이 있다.

이 도대불은 조선시대에 해안선을 돌아가며 설치했던 연대와 봉수대를 일제 시대에 들어와 재활용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해왔으나 전기가 들어온 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도47)

이처럼 삼다도(三多島) 제주에서 돌을 제외한다면 제주의 참맛을 찾기 힘들 것이다. 기기묘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자연에서의 현무암들은 별다른 조형적 수식 없이 바라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는 등잔, 담뱃대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돌 문화유산들은 장구한 시간의 역사를 인간과 함께 굴러온 돌로써 고전적인 형태에서 느껴지는 고졸(古拙)한 단순미와 자연미는 원시적인 건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도39. 대정현의 돌하르방
(대정읍 보성리)



도40. 제주현의 돌하르방
(제주대학교)



도41. 정의현의 돌하르방
(표선면 성읍리)

24) 고광민, 「제주인의 삶과 돌」, <제주학> 3, 제주학연구소, 1999



도42. 방망이를 든 동자석
(조천읍)



도43. 꽃을 든 동자석
(북제주군 구좌읍)



도44. 홀을 잡은 동자석
(제주시 아라동)



도45.새부리모양의 방사탑
(한경면 용수리)



도46. 남두연대(외도와 애월 연결)
(애월읍 구엄리)



도47. 애월포의 도대불
(애월읍 애월리)

(2) 용기를 이용한 민구류에서 보여 지는 조형표현

제주도는 화산폭발로 인하여 생성된 화산회토가 지표면을 덮고 있어 토질은 찰기가 없어 가볍고 푸석 지며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찰지고 좋은 용기토의 맥(脈)을 가지고 있어 일찍이 토기를 만든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신석기 시대의 연질 토기를 거쳐 점차로 단단한 용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용기는 공기가 통하고 숨을 쉬는 그릇이라 말하며 크게 ‘오지그릇’과 ‘질그릇’으로 나눌 수 있다. 1200℃까지 산화 소성하여 단단하게 구운 용기를 보통 오지그릇이라 하는데 단단하여 잘 깨어지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 장이나 젓갈 또는 김치를 담은 항아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물을 옮기는 허벅이나 고소리(소주고리) 등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질그릇은 900℃정도에서 환원소성을 하여 검게 탄소를 먹여 먹구이한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흑회색을 띄며 제주에서는 지세그릇이라 하였다. 열에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열과 수분을 잘 흡수하여 여과 기능을 갖게 되고 기물에 입혀진 탄소에 의하여 청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항아리나 질시루, 질화로, 질술, 질밥통 등의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용기의 종류는 수십 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항아리와 독들이다. 제주에서는 옷통개, 알통개, 춘재미, 망데기 등 형태와 크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불렀으며 김치나 장, 젓갈류들을 저장하였다.(도48)

또한 고팡(창고)에는 지세항, 씨항, 씨허벅, 삼귀항 등을 두어 씨앗, 햇곡식 등의 마른 곡식을 보관하였고 술을 빚는 술항아리나 물항아리로도 쓰였다.

제주도의 항아리는 중배가 부른 풍만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장태(항아리뚜껑)는 윗면을 편편하게 만들어 소래기, 자배기 대응으로도 쓰였다.(도49)

육지의 항아리는 잿물을 입히고 환을 쳐 문양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제주 항아리는 잿물을 입히지 않고 연료인 나뭇재가 떨어져 입혀진 자연유 만으로 처리되어 천연의 윤기가 흐르고 또한 통기성이 좋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옛날 제주의 전통방식으로 빚어낸 용기들은 ‘숨쉬는 그릇’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양도 기면에 흙 띠를 붙이고 눌러주거나 ‘보로롱’이라 칭하는 음각의 빗살무늬만으로 시문되어 있어 단순미가 돋보인다.

제주도에서 항아리 다음으로 많이 쓰였던 용기가 바로 허벅이다. 허벅은 샘이 귀했던 제주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해안가 용천수나 봉천수가 있는 곳까지 먼 길을 걸어 물을 길어와 식수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운반 시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좁은 부리에 둥근 몸체를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몇 개씩은 가지고 있었다.(도50)

허벅의 좁으면서 배가 부른 형태를 제주인들은 ‘코조록 허멍 타부룩 허게 멘 들어사’ 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허벅의 조형성을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그릇을 생산하는 장인들 가운데서도 이 허벅을 만들 수 있어야 ‘대장’으로 불리워졌을 만큼 허벅은 크기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져 제주질그릇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²⁵⁾

크기가 가장 컸던 바릇허벅 외에도 옷데기허벅(도51), 알데기허벅, 15~16세의 소녀들이 사용했던 대바지(도52)와 그보다 작은 애기대바지 등 크기와 종류가 30여 가지가 되었으며 용도별로는 물을 운반하는 물허벅, 술을 보관하는 술허벅(도53), 씨앗을 저장하는 씨허벅, 죽을 쑤어 담는 죽허벅 등 다양하게 쓰여졌다.

우리 조상들은 곡식을 발효시켜 만드는 ‘술’도 용기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였다. 제주지역에서는 소줏고리를 고소리라 불렀는데 형태는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다. 제주인들은 고소리의 몸통 아랫부분을 ‘알박’, 윗부분을 ‘옷박’이라 하였고 한쪽 끝에 술이 흘러나오도록 뽕죽한 대롱을 따로 만들어 붙였다.(도54)

고소리는 구조가 까다롭고 만들기가 어려워 주문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리의 값은 비싸게 거래되었다. 이러한 고소리로 빚은 술은 장군병에 담아 옮겨졌으며(도55) 이외에도 젓갈류를 보관했던 젓단지(도56)와 독사발(뚝배기그릇), 그리고 물팽(물병), 술팽(술병), 기름팽(기름병), 자라팽(자라모양의 휴대

25) 강창언, 「제주용기와 제주자기」, 2002

용 물병)(도57)등이 있으며 각종 양념을 담아 사용했던 단지(작은항아리)(도58) 등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질그릇의 종류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시루이다. 질시루라야 올라오는 열과 습기를 빨아들였다가 골고루 내뿜어 떡을 잘 찌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루는 바닥이 편편하고 수증기 구멍이 뚫려 있으며 크기와 용도별로 조막시루, 말치시루, 약시루, 콩나물시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였다.(도59) 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을 오래 고을 때는 옹기솥을 사용하였고 밥맛이 변하지않도록 질밥통에 보관하였으며 떡배기, 주전자, 지세허벅(도60) 또는 제기 등 옹기는 식기구로서 많이 애용되었다.

이러한 옹기들은 쓰임새에 따라 그물추나 문어잡이통과 같은 어구류(漁具類), 약연(藥研)이나 약탕관(도61), 약절구, 약시루 등의 의료기구(醫療器具), 오줌허벅과 같은 농구류(農具類), 오지연적(도62), 질벼루 등의 문방구(文房具) 또는 집안 살림에 필요한 갖가지 수저통(도63), 다리미받침, 등잔, 질화로, 향로, 떡살, 채반, 바람(갈대기)등 다양하게 만들어져 생활속에 자리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옹기는 제주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제주의 옹기토는 흙 속에 염분과 철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흙으로 만들어진 옹기류(甕器類)들은 소성 후 붉은 빛깔을 내므로 과잉장식이 없이도 자연스러움과 소박함이 느껴진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현세에 집착하지 않는 풍요로움과 후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투박한 듯한 기형(基形)에서 오는 순박하고 꾸밈없는 순수한 자연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옹기를 만들던 이름 없는 도공들의 사심 없는 평범함과 그것을 사용하던 순박한 우리의 여인네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함을 담고 있다. 따라서 생활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정성만은 담아내야 했던 제주인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제주옹기에서 느낄 수 있는 참맛이라고 할 수 있다.



도48. 항(항아리)



도49. 장태(항아리뚜껑)



도50. 허벅



도51. 옷데기허벅



도52. 대바지



도53. 술허벅



도54. 고소리(소줏고리)



도55. 장군



도56. 벨컷단지(멸젓단지)



도57. 자라팽(자라모양의 휴대용 물병)



도58. 양념단지



도59. 시리(시루)



도60. 지세허벅



도61. 약탕관



도62. 오지연적



도63. 수저통

(3) 나무를 이용한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표현

제주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인하여 수종(樹種)이 다양하므로 목공예품이 특히 발달하였는데 주로 산촌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며 방(房)의 각종 수장구(收藏具)를 비롯하여 살림도와 농기구, 운반구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재를 이용한 식생활 용구가 많으며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목재를 사용하여 연장인 곡쇠, 낫, 자귀, 끌, 망치, 정, 손도끼 등의 도구의 자국이 나타나 자연의 결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으며 대패질을 하지 않아 질박하고 순박하며 꾸밈이 없고 장식도 무쇠장식을 많이 썼다.

널리 사용된 생활용구로는 남방아, 도고리(함지박)과 같은 대형기물과 나막신, 궤(반단이), 떡본, 솔박 등이 있다.

방에(방아)는 탈곡한 보리나 산디(밭벼)의 껍질을 벗길 때 또는 큰일이 있을 때 떡가루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통나무를 통으로 자른 후 속을 파서 함지박처럼 만들고 가운데에 둥그렇게 구멍을 내어 ‘혹’이나 ‘확’,을 고정시켜 놓은 남방아와 ‘돌혹’이나 ‘돌확’을 박고 현무암으로 만든 돌방에가 있다.(도64)

도고리(함지박)는 큰 나무의 안을 후벼 파 통이 되게 만든 그릇으로,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데 고래 작업을 할 때 쓰는 고래도고리, 떡가루를 버무리는 떡도고리, 대소상이나 제사 때 한꺼번에 많은 멧밥을 떠 나르는 데 쓰였던 밥도고리 등이 있다.(도65)

남신(나막신)은 비가 오거나 물구덩이를 지나갈 때 남녀 구별 없이 신었던 나무를 파서 만든 신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달려 있는데 남자용은 앞뒤 굽이 뚜렷이 나누어지고 여자용은 코가 날카롭고 매끈하며 굽이 여덟팔자(八)형으로 벌어져 있다. (도66)

궤는 반단이라고도 하며 괴목 같은 튼튼한 나무를 두툼하게 잘라서 가구의 반을 짓혀 열게 되어있는 것으로, 금속으로 장식을 하고 자물쇠를 물려 옷가지나 문서 등의 귀중품을 넣어두었다.(도67)

떡본(떡살)은 떡에 모양과 무늬를 찍어 넣는 도장판으로 솔벤 떡본, 절벤 떡본 두 가지가 있다. 솔벤떡본은 철을 이용하여 반달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절벤떡본은 목질부 중앙에 문양을 넣고 좌우로 손잡이가 있는데 문양은 태극문, 국화문, 벚꽃문, 빗살문 등 다양하였다.(도68)

솔박은 나무를 타원형으로 둥글게 파내어 만든 그릇으로, 곡식을 퍼내거나 도량용구로 쓰였는데 작은 것은 ‘작박’ 또는 ‘좁박’이라고 하여 밥을 지을 때 양을 요량하는 용구로 사용되었다.(도69)

이외에도 반죽된 떡의 재료를 밀어 내거나 고기를 자를 때 또는 양념을 장만할 때 사용되었던 제주 식 도마와 상(床), 곰박, 낭쟁반(나무쟁반), 덩드렁마끼(짚방망이), 호랭이, 다식판 등이 있다.

제주도의 목공예품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여유로운 형태에 넉넉함이 있으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문양으로 그 빛깔(色)은 따뜻하며 함축성이 있는 맛이 느껴진다.

이처럼 제주인들이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민구류에는 일상성(日常性)이 표출된다.

목재도 쉽사리 손에 닿는 것을 사용하였고 나무가 반듯하게 켜지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며 또 마침 맞는 것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썼다. 바닥은 약간 편평하게 해두면 그만이고 생나무로 만든 것은 곧잘 틀어지고 깨지지만 그것은 또 그것으로 그만인 것임으로 힘들이거나 신경을 써야 할 일리 없기 때문에 완성품에도 여유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목공예품에는 자로 재서 만든 것처럼 정밀한 데는 없지만 그 만큼의 여유가 있고 따뜻하며 언제나 함축성이 있고 맛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조그마한 나막신 하나에도 표현 못할 그 무엇인가가 남는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인간이외에 자연이라는 것이 가미되어 있어서 장구한 세월의 흔적을 넘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닮아있는 것이다.



도64. 남방에



도65. 도고리



도66. 남신(나막신)



도67. 궤(반닫이)



도68. 떡분(떡살)



도69. 솔박

(4) 철기를 이용한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표현

농경발달 과정에서 볼 때 한국 본토에서는 이미 지증왕 때부터 고도의 농경 단계인 쟁기갈이가 시작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제주도는 호미나 팽이로 밭을 일구는 팽이갈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본토와의 교역이 적어 생활필수품을 대부분 자급자족해 왔다. 처음에는 팽이갈이에 알맞은 손풀무인 '뚝딱불미' 형태의 주물공예가 가내수공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뎡이'에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넣는 방법으로 주로 솥, 보습, 벧 등을 만들었으며, 달궈낸 시우소에 매질을 가하여 칼, 낫, 팽이 등을 주조하였다. 그 뒤에 쟁기갈이에 알맞은 보습이나 벧을 주조하기 위한 '토불미'나 '청탁불미'가 이루어지며 가정마다 쓰이던 무쇠솥, 보습과 쟁기 등 농기구의 대부분을 불미공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의 주물공예는 가장 단순한 구조인 '뚝딱불미'에서 '토불미', 밭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무쇠를 녹이는 '청탁불미'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1945년부터는 기계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변형된 청탁불미의 형태가 도입되어 솥, 보습, 벧 등을 주조하는데 필요한 '뎡이'와 '뚝'을 만들 수 있는 점토(粘土)가 나오는 남제주군 구좌읍 덕천리, 북제주군 한경면 낙천리,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등지에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오고 있다.²⁶⁾

이러한 불미공예의 제작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에는 가마솥과 날라리(호적), 팽과리 등의 악기류, 농기구인 쟁기와 홀태, 다리미, 비녀 등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가마솥은(釜, 부)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래가 우묵하지 않고 편평한 편으로 발(足)이 달려있지 않은 대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솥의 몸체 가운데에는 걸침대가 빙 둘러져 있다. 가마솥의 뚜껑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어 뚜껑을 여닫기 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앙증맞게 생겨 둥그렇

26) 문화예술자료/ 「德修里불미工藝」, 문화재청

기만 한 술의 모양에 변화를 주고 있다.²⁷⁾

술을 엮어놓은 것 같은 오름을 닮은 제주의 가마술은 부드러운 둥근 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만한 맛이면서 구수하고 큰 맛으로 비록 겉은 검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희고 맛있는 밥이 끓고 있어 누룽지의 구수함을 닮았고 또한 시골 아낙네의 푸근함을 닮았다.(도70)

보습은 잠대(쟁기)로, 논밭을 갈 때 흙을 일으키는 농기구로, 벧을 사용하여 흙덩이가 한쪽으로 넘어지도록 하였다.(도71)

다리미는 주철로 만들어 의복의 구김살을 펴는 용구로, 바닥은 매끄럽고 솥을 담는 곳은 오목하게 하여 나무로 된 손잡이를 박아서 쓰도록 되어 있으며(도72) 양손윤디(인두)는 다리미와는 달리 작고 가볍고 끝이 예리하여 구석진 술기까지 완전히 구김살을 펴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도73)

자물쇠는 둥근 통 모양으로 만들어 ‘통쇠’라고도 부르는데, 자물통과 열쇠로 구성되며, 걸고리가 있는 케 등을 잠글 때 사용하였다.(도74)

날라리(호적)는 나무의 속을 파서 여덟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든 국악기의 한 가지로 군악, 종묘제향악, 농악 등에 두루 쓰였다.(도75)

불미공예의 주재료인 주철(柱鐵)은 표면이 세세한 요철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모아둔 열을 놓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식이 잘 늘어붙지 않고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표면이 녹슬어도 그 녹이 내부까지 스며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그러한 중량감(重量感)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제주의 철기를 이용한 민구류들은 가마술에서 느껴지는 구수함뿐 만 아니라 순박(淳朴)과 순후(淳厚)한 데서 오는 큰 맛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입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완만한 맛으로, 수수하나 화려하지 않으며, 아기자기하나 웅장하지 않으며, 부드러우나 거칠지 않은 서민(庶民)적인 미(美)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 전통문화의 이해/ 「한국 전통의 가마술」, 2005



도70. 가마솥



도71. 보습



도72. 다리미



도73. 양손윤더(인두)

도74. 자물쇠



도75. 날라리(호적)

(5) 초경을 이용한 민구류에서 보여지는 조형표현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는 따뜻한 환경 때문에 산과 들에는 새(띠), 신사란, 정동, 등의 식물이 자란다. 제주인들은 이러한 식물의 줄기들을 이용하여 생활의 용품이나 도구, 보리, 콩, 고구마 등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담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썼는데 이것을 ‘초경공예’라 한다.

초경공예는 주로 제주도의 중산간촌에서 만들어졌으며 종류에는 새(띠)를 이용한 띠공예, 신사란이라는 풀로 만든 초신공예, 제주의 조릿대(수리대)를 사용한 죽공예, 정동(땡땡이덩굴)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정동공예 등이 있다.

새(띠)는 제주의 초가의 지붕을 덮고 엮어 매기 위한 줄을 만들었던 재료로, 집에서도 새밭(띠밭)을 만들어 재배하기도 하였으며 우의(雨衣)인 '도롱이', 날가리를 덮는 '노람지', 초석, 망텝이 등이 제주의 띠공예품이다.

그 중에서도 초석은 만들 때 가장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데, 띠를 베어다 말려 줄을 꼬아 짚으며 특히 제주의 초석은 서귀포시 예례동과 성산읍 난산리에서 오래도록 전승되어져 왔다.²⁸⁾

망텝이는 씨앗이나 비료 등 소량의 것을 담아 쓸 수 있게 바닥을 원형(圓形)으로 하고 원통형(圓筒形)으로 만들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하였다.(도76)

초신(짚신)공예는 ‘신사란’이란 풀을 가지고 짚을 엮어 다소 엉성하게 짜 짚신, 짚방석, 정지방석, 가마니 등을 만들었다.

짚방석은 집안에서도 사용하고 손님을 맞을 때도 내놓는 것이어서 제일 빛깔이 좋고 잡티가 없는 부드러운 재료를 골라 물을 축이고 덩드렁마께(짚방망이)로 두드려 가는 실처럼 만들어 새끼줄로 꼬아서 동심원으로 짚다.(도77)

제주에서만 자라는 조릿대(수리대)는 줄기가 가늘고 마디가 표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죽제품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제주인들은 용도에 따라 산기구덕(나물이나 채소를 담는 바구니), 서답구덕(빨래를 넣어 두는 바구니), 물구덕(물허벅을 운반하는 바구니), 애기구덕(요람), 고기구덕(잡은 물고기를 담

28) 이훈중, 「민족생활사전」, 한길사, 1992

는 바구니), 맬구덕(제일 하품(下品)으로 채소나 빨래 등을 담은 바구니), 송키구덕(바닷가에서 해초를 따오거나 밭이나 들에서 산나물이나 채소 캔 것을 운반할 때 이용되는 바구니), 동고량(도시락주머니)등을 만들어 썼다.

동고량은 참억새를 짜고 있는 껍질인 ‘미삐쟁이’를 뽑아 끈 실로, 그물처럼 엮어 짜서 만든 야외용 도시락 주머니로 어깨에 매어서 사용하였다.(도78)

푸는체(키)는 바람을 일으켜 보리, 조, 콩, 메밀 등 알이 있는 곡식을 탈곡하여 알갱이와 쪽정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검부기(껍질)가 나가는 곳은 수평으로 약간 넓게하고 알갱이가 남는 안쪽은 움푹하게 하여 뒤쪽을 높게 만들었다.(도79)

정동공예는 제주도 중산간 일대에서 자라는 정동(땡땡이덩굴)을 재료로 정동벌립(정당벌립)이라는 모자를 만들었는데(도80), 야생에서 자란 정동은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 패랭이보다 질감이 부드러우며 농부들이 말이나 소를 방목하면서 수풀에 얼굴이 스치는 것을 막고 비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제주의 초경공예는 제주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용구(用具)였던 까닭에 생활과 밀착되어 끊을 수도 떨어질 수도 없는 존재였으며 우리의 조상들의 생활을 시대적으로 반영시켜준 전통적인 민예품(民藝品)으로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검소하며 질박(質樸)하면서도 운치가 있으며 그 빛깔은 자연의 색이라 오래두고 보아도 물리지 않는다.²⁹⁾ 또한 형태는 아무런 과장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짜임새는 섬세하지는 않지만 온화한 질감을 표현해 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초경공예는 척박한 제주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제주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풀(草)의 미학이며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다.

29) 우리문화찾기/ 「한국의 민속공예」



도76. 망텝이



도77. 짚방석



도78. 동고량(도시락주머니)



도79. 푸는체(키)



도80. 정동벌립(정당벌립)

IV.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 의도 및 방법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만드는 조형행위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오늘날의 창조활동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삶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활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공예(工藝)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공예를 성립시키는 본질은 실용성(實用性), 기능(機能), 미(美)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공예가 그 공예적 본질을 뛰어넘어 하나의 조형작품으로서 새로운 생명력과 조형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도예(陶藝)의 경우도 실용성과 조형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두 영역을 조화시켜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은 어느 특정한 목적만을 만족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작가나 감상자에게 다양한 의미를 샘솟게 하는 독창적인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후, 풍토, 지리적 조건, 생활풍속, 생업 등이 다른 지역과는 많이 다른데 고온다습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제주인들은 바람을 다스리고 근검절약하며 의(衣), 식(食), 주(主)를 해결하였고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민구류(民具類)들은 그날그날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환경에 맞으면 그만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자라고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대부분을 자급자족하였다.

30) 정동훈,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1995

따라서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 연구자는 제주인의 생활 문화가 짙게 깔려 있으며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제주의 민구류들에서 나름대로의 조형적인 미(美)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토우(土偶)는 당대의 민구를 사용하던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자 표현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모습은 옛 것을 낡은 것이라고 의면하기 보다는 ‘古’ 라는 명제 앞에서 항상 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한다.

따라서 세월의 흔적이 녹아내린 자연의 일부와도 같은, 예로부터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써 온 도구, 기구, 농기구, 문방구, 놀이기구 등의 민구(民具)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형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토우는 신라시대의 토우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형태의 과장(過狀)과 즉흥적인 변형(變形)에 의한 생략(省略)과 단순화(單純化)의 표현 방법보다는 당대의 서민들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사각의 형태는 제주의 현무암을 상징한다.

사각형의 고정적인 외형에서 제주도의 강인함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제주인들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바람벽’ 으로서 축담뿐 만 아니라 방어 시설이 된 제주 돌의 이미지들을 상징하고자하였다.

작품의 제작은 판 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기법, 코일링 기법, 투각 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작품의 형태는 제주의 민구(民具)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實用性)에 바탕을 두어 서로 다른 민구들을 조합시켜 제주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민구를 사용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토우의 형태로 만들어 불임으로서 제주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제주의 감성과 향토성을 형상화해 보고자 하였다.

작품의 색상은 유약을 시유하기 전에 제주토를 넣은 흑화장토로 기물의 전체를 담금 처리하여 민구류들에서 보여지는 질박하고 제주인들의 소박함을 담은 색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에 따라 3차 소성을 하여 제주의 향토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작품의 제작은 판 성형기법과 물레 성형기법, 코일링기법, 투각기법 등을 사용하였다.

판 성형 방법으로는 작품의 사각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는데 납작하게 밀고 두드린 점토판을 반 건조 상태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크기대로 잘라 판의 모서리 부분을 대각선으로 맞붙였다. 그리고 반 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물레 성형기법과 코일링 기법으로 만든 작품의 주제부분을 서로 접목하고 나서 토우를 만들어 붙여 형태를 완성하였다.

토우는 점토로 인물을 성형하고 백화장토와 흑화장토를 이용하여 이중상감 처리한 후 완전히 건조가 되고나면 사포로 가볍게 문질러 화장토의 두 가지 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처리하였다.

작품에 따라 기본적인 색감을 내주기 위해 기물이 반 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화장토를 이용하여 붓으로 칠해 주었다.

유약은 흑유대신 제주토를 섞은 흑화장토를 사용하여 어두운 색감을 내주었고 부분적으로는 색화장토와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채색한 후 제주토유와 고온유를 덤핑 시유하였다.

토우는 따로 만들어서 초벌구이를 하고나서 작품의 유약시유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기물위에 올려놓고 스프레이로 유약을 뿌렸다.

건조 후 870℃에서 1차 소성하여 유약을 시유하고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V. 작품설명



작품 1. 민구(民具)이야기- 솔과 정지방석, 40×51×7cm

작품 1. 민구(民具)이야기- 솥과 정지방석

솥(釜)은 부엌세간으로 밥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끓여 냈다. 재래식 솥은 무쇠로 된 것에 네 귀가 달려있고 뚜껑의 손잡이는 오긋하며 손잡이도 무쇠로 꼭지 달린 것을 썼다. 짚으로 만들어진 정지방석(부엌방석)은 짚이나 새끼를 여러 겹으로 동그랗게 틀고 새끼로 뱅 돌려 감아 만든 방석으로서 한 사람씩 깔고 앉기에 좋게 만들어 졌다.

옛날 제주 서민들이 사용하였던 솥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형 작업한 것으로, 이 작품에서 구멍이 뚫린 사각의 형태는 물을 데우거나 밥을 지을 때 외부 쪽 벽에 붙여서 돌을 놓아 솥을 엮었던 화덕을 의미하며 또한 땀감이 모자라던 시절 불기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조냥 정신을 상징한다.

그리고 토우는 금방이라도 솥을 열어 그 안에 담겨있는 따뜻한 음식을 떠내려고 하는 서민들의 온정어린 모습을 나타내며, 작품의 왼쪽 상단부분은 제주 돌의 이미지를 이중상감 처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 불을 피워놓은 것은 가마솥에서 느껴지는 정겨움을 담아보고자 실제의 상황과 흡사하게 재현한 것이다.

소지는 산백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판 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으로 형태를 완성하여 그 위에 토우를 붙였다.

솥은 반 건조 시 흑상감을 붓으로 발라 어둡고 무거운 무쇠의 느낌이 나도록 처리하였다.

870℃로 1차 소성을 하고 기물 전체를 황(黃)색 계열의 제주토유로 담금 시유한 후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2. 민구(民具)이야기- 다듬잇돌, 32×44×11cm

작품 2. 민구(民具)이야기- 다듬잇돌

예로부터 다듬이는 우리의 의(依)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천을 부드럽게 하고 옷의 윤기를 내는데 필요한 것이 다듬이질로 한자로는 도침(搗砧)이라고 하였는데 다듬이질을 하는 것은 주로 겹옷, 솜옷, 침구류 등이어서 늦가을과 겨울철에 천의 풀기가 다 마르기전에 비틀린 옷을 바로 펴서 뵙아 흥두께에 말아서 다듬거나 다듬잇돌에 놓아 흥두께에 감고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다듬이 방망이로 리듬을 맞춰 두드렸다.

‘또다다닥.....,’ ‘또다다닥.....,’ 어린 시절 자장가처럼 그윽한 정취가 배어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구김살, 또한 곱게 퍼지는 데 그 소리는 청아하게 담장을 넘어가 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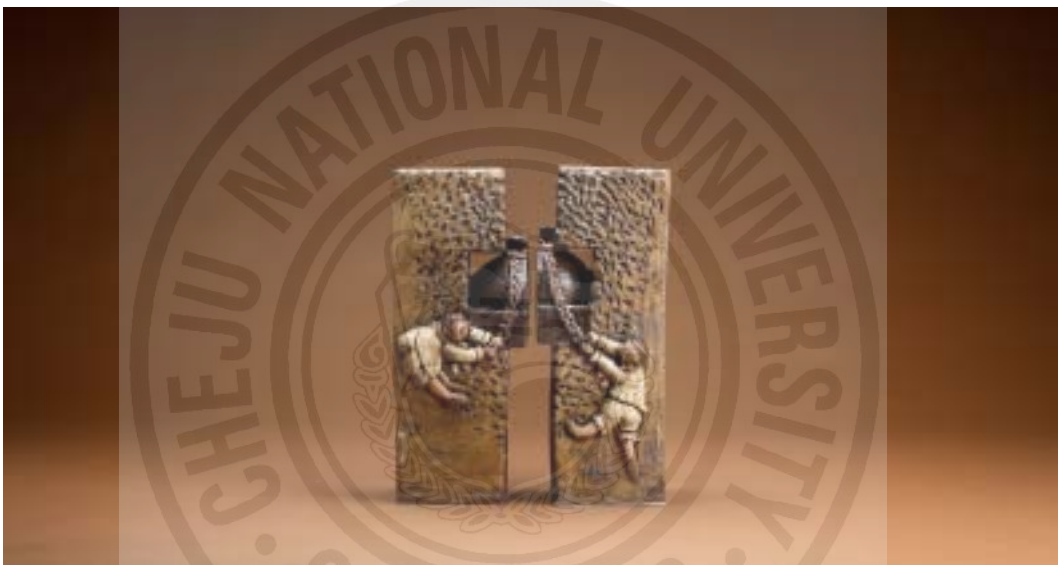
여인네들은 고된 생활 살이 모질게 매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한 시집살이에 대한 설움이라든가 여인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고 감내해야만 했던 가슴속 응어리진 사연들을 두드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

그래서 다듬이 소리는 여인네들의 한(限)을 닮아있다. 다듬잇돌에 부딪혀 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나면 아마도 우리의 어머니들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기에서 작은 위안을 얻지는 않았을까.

또한 돌하르방은 마치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주 관내의 주민들의 강녕과 융성을 지켜주던 수호신처럼 언제 어디서나 여인네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지아비로서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소지는 산백토를 사용하였으며, 성형 후 반 건조 상태가 되었을 때 백화장토로 기물 전체를 붓으로 칠하여 토우를 붙였다.

유약은 초벌구이 하고나서 기물 전체를 당청유로 시유한 후 투각된 돌하르방의 가슴부분을 막고 코발트매트유로 다시 한번 기물전체를 담금 시유하여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3. 민구(民具)이야기- 물허벅, 42×49×10cm

작품 3. 민구(民具)이야기- 물허벅

물허벅은 식수를 길어 나르는 물동이로 한 아름의 둥그런 몸체에는 빗살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부리는 손으로 집어 올리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물이 귀했던 제주의 지형적 여건 때문에 물허벅에 물을 담아 운반했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이 그 어떤 애환도 모른 채 장난삼아 물허벅을 가지고 노는 모습 속에서 옛 서민들이 몸은 힘들고 지쳤으나 그 마음만은 인정 많고 순박해서 마치 어린아이 같음을 나타내고자 표현하였다.

작품의 외형을 감싸고 있는 사각의 형태는 제주의 현무암의 상징이며 제주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苦難)의 삶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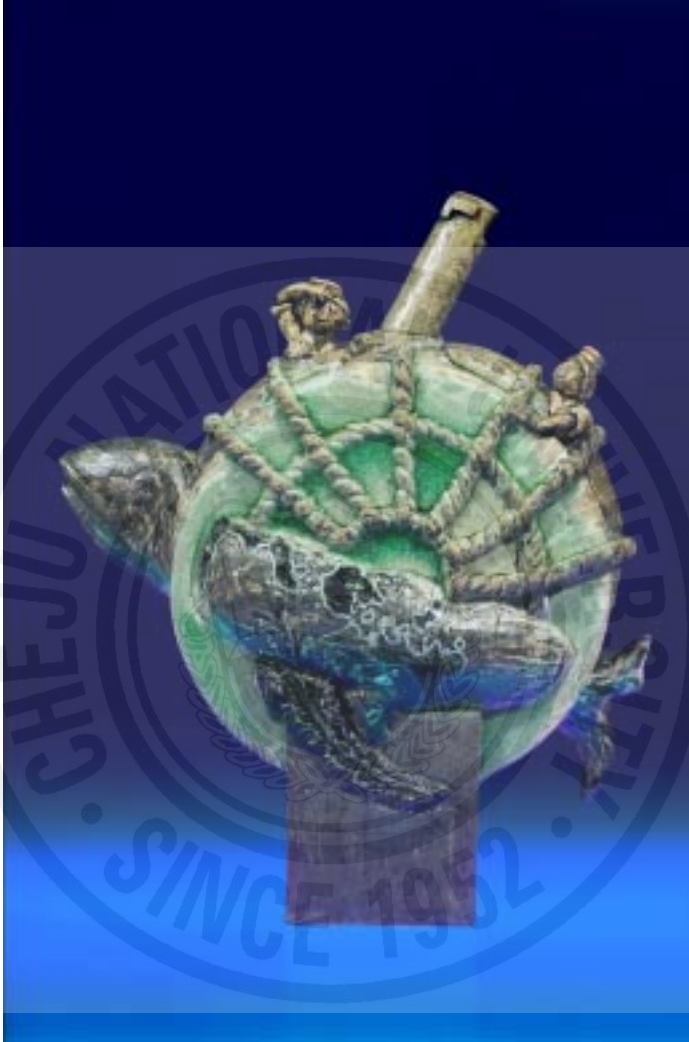
하지만 너무나 단단하고 강해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돌덩이도 언젠가는 세월의 풍파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모(磨耗)되는 것처럼 간혀있는 일상 속의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두 개로 나누어져 약해보이지만 다시 만나 하나가 되면 그 응축되어진 힘이 두 배가 되어 모진 겨울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그러한 제주의 역사를 닮은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두개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소지는 조형토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관 성형, 코일링 성형기법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조형화하였다.

아이들은 성형 후 반 건조 상태에서 붓을 사용하여 안료와 백화장토를 발라 얼굴과 옷을 표현하였다.

870℃로 1차 소성한 후 흑유를 발라 표면을 닦아낸 기물 위에 당청유를 담금 시유하고 백운석유를 붓으로 덧발라 주었으며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4. 민구(民具)이야기- 태왁, 39×48×15cm

작품 4. 민구(民具)이야기-태왁

해녀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며 물질을 하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숨비 소리를 내뿜으며 태왁에 몸을 의지한다.

태왁은 통째로 속을 파내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다시 막아 거기에 그물을 씌어 만든 것으로, 해녀가 잠수하여 잡은 소라, 전복 등을 담고 이것에 의지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민구(民具)이다.

태왁의 둥그런 형태는 강인하고 생활력이 뛰어난 제주여성을 닮아있는 것으로, 망망한 바다에서 바다는 자꾸만 뒤척이고 물밑은 아득하기만 한데 태왁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뼈마디는 저리고, 숨비 소리조차 쉬어버렸지만 아직도 제주 여인네들의 가슴 속에는 제주바다가 숨쉬고 있다.

태왁의 표면에 흐르고 있는 ‘초록빛’은 제주의 자연을 표현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바다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초록(草綠)이 갖는 의미는 앞날에 대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색으로서 질기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해녀들의 끈질긴 생활력이며 동시에 태동(胎動)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것은 마치 바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처럼 아무리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부족한 듯 느껴질지라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더 채워나가려고 하는 해녀들의 당찬 모습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물질할 때 사용했던 도구의 하나인 호미는 날이 선 부분을 해초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해녀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바다 밭을 의미한다.

산백토를 이용하여 판 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기법으로 제작하였다. 870℃에서 1차 소성한 후 새우색유를 기물전체에 시유하여 닦아내고 흑유를 얇게 분무 시유한 위에 제주토유를 다시 시유하여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바다의 느낌을 담아내기 위해 초록빛이 도는 유리병을 잘게 부수어서 얇힌 기물 위에 얹어놓은 후 970℃로 3차 소성을 하였다.



작품 5. 민구(民具)이야기-맷돌, 32×53×17cm

작품 5. 민구(民具)이야기-맷돌

맷돌은 알곡을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모습인데, 성인의 한 아름정도 되는 둥근 돌 2개를 상하에 얹혀 돌리면서 윗돌(웃돌)에 파여진 구멍(코)으로 곡식을 집어넣으면 위아래 돌 사이로 잘게 쪼개지며 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다.

작품의 토우에서처럼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우, 한 사람은 주로 맷돌을 회전시키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맷돌을 회전시키는 일과 병행하여 곡물을 담아 넣는 일을 하는데 곡식이 다 갈릴 때쯤이면 근심, 걱정까지도 다 풀리게 되어 뽀얀 곡물가루처럼 마음까지도 새하얘지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두 사람이 컷속말이라도 주고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데 술술 잘도 돌아가는 맷돌은 힘든 노동을 할 때 고달픔을 잊기 위해 이야기나 타령을 주고받으며 생활했던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한사람이 이야기의 시작을 터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이어가는 모양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말 보따리를 맷돌로 조형화하였다.

그리고 나무는 마치 돌하르방처럼 늘 초가의 뒤편이나 장독대 한쪽에 서서 묵묵히 한 집안을 지켜주었던 수호의 의미로 감나무를 표현한 것이다.

소지는 산백토를 사용하였고 관성형 기법과 물레 성형기법, 그리고 코일링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기물이 반 건조 되었을 때 백화장토를 바르고 870℃로 1차 소성하여 제주토를 섞은 흑화장토로 기물 전체를 시유한 후 맷돌과 나무부분만 남기고 굽어내어 황이라보유를 전체적으로 담금 시유하였다.

나뭇가지의 끝부분은 아이보리 매트유를 붓으로 발라주되 위쪽 나뭇가지 끝에서부터 아래쪽 나뭇가지 끝으로 발라주면서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작품 6 민구(民具)이야기- 정낭과 방아, 58×45×17cm

작품 6 민구(民具)이야기- 정낭과 방아

돌을 오목하게 파낸 원통형(圓筒形)의 방아에 곡물을 넣어 찧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초가와 정낭의 모습에 방아를 접목한 것으로 서민의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초가에서 의, 식, 주의 하나인 식(食)문화에 기초를 둔 방아질을 하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표현한 것이다.

정낭은 안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암시해 주는 제주의 상징물의 하나로 가옥(家屋)의 입구에 해당되는 올래 어귀에 설치되어 집주인의 소재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다. 재료는 대부분 목재를 이용하였으며 정주석에는 2~4개의 직경 10cm 내외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장대같이 길다란 나무를 걸쳐 놓았다. 나무가 한개만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잠깐 외출한 것으로, 두 개가 있으면 좀 긴 시간 외출했다는 신호로, 세 개가 다 있으면 종일 출타중이라고 알았다. 여기에서는 초가 풍경의 하나로 담아 보았다.

작품의 오른쪽의 형태는 저마다 크기와 형태가 달라 독특한 제주의 자연미를 보여주는 자그마한 기생화산인 제주의 오름을 의미한다.

토우로 표현된 아이들은 오름 등성이에서 소와 말,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제주의 목가적(牧歌的)인 아름다움을 동심(童心)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되돌아가는 제주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익살스러운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에 담아 인간적인 것을 회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생동하는, 아이를 닮은 제주의 생명력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조형도를 이용하여 판성형 기법과 코일링 기법으로 제작하였으며 반 건조되었을 때 기물 전체를 제주토를 섞은 흑화장토를 발라 어두운 색상을 내 주었다.

870℃로 1차 소성하여 당청유로 담금 시유한 후 백운석유를 붓으로 바르고 다시 한번 더 당청유로 기물전체를 분무 시유하였으며 1250℃에서 산화염 소성하였다.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1), 23×23×7cm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2), 23×23×7cm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3), 23×23×7cm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4), 23×23×7cm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5), 23×23×7cm

작품 7. 민구(民具)이야기-등잔과 살레

천지에 가득한 어둠을 밀어내고 언제나 훈훈한 입김으로 일터에서 돌아온 서민들의 밤을 밝혀주었던 것이 등잔이다.

등잔은 한쪽에 기둥을 세우고 상단 부 한 곳에 등잔걸이를 정착시키게 되어 있으며 기둥의 상단부에 적당한 간격으로 톱니형의 계단을 만들어 필요에 따라 등잔걸이의 높낮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재료에 따라 목재, 무쇠, 유기, 도자기 등 그 종류는 다양하나 나무로 만든 것이 많으며 새, 꽃, 동물 등을 투각하거나 양각하여 멋을 부리기도 하였다

제주사람들의 겨울밤은 캄캄하고 차가웠지만 나직한 입김에도 하늘거리는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사그라들 것처럼 약해 보여도 다시 살아나 일렁이며, 캄캄하게 얼어붙은 밤에도 어김없이 다정한 빛을 뿌려 주었다.

이처럼 등잔 속에는 하루하루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빌었던 아녀자들의 온갖 사연들을 담은 작은 바람들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등잔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으로는 부엌의 식기류를 보관하는 수납장인 살레를 놓고 오른쪽에는 정지문을, 그리고 부엌 밖의 풍경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수호, 풍농을 기원했던 솟대를 배치하여 어떤 기원의 의미들을 순수한 아이들과 어우러지게 하여 표현하여 보았다.

소지는 산백토를 사용하였으며 판 성형으로 사각의 틀 형태를 먼저 만든 후 주제가 되는 가운데 부분은 코일링 기법과 판 성형으로 하여 사실감 있게 세부묘사를 하였다. 토우는 따로 제작하여 붙였으며 반 건조 상태에서 색화장토와 안료로 1차 장식을 하였다.

870℃로 초벌구이한 후 흑화장토를 담금 시유하여 사각 틀의 어두운 색감을 내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닦아내어 아이보리 매트유를 붓으로 바르고 그 위에도 청자유로 기물 전체를 다시 한 번 덤핑 시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청유로 분무 시유하고 1250℃에서 산화염 소성을 하였다.

VI. 결 론

제주도는 섬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계절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자연, 선사시대부터 맥박 치며 흘러온 격랑의 역사, 척박한 땅을 일구고 역사를 슬기롭게 헤쳐 오면서 엮어낸 전통문화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제주만의 고유한 풍토성을 담은 민구류(民具類)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색감(色感), 그리고 형태에서 느껴지는 서민적인 소박미(素朴美), 질박미(質朴美), 자연미(自然美)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향토성(鄕土性)을 짙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제주의 민구류들에 깃들여 있는 향토미를 찾아 작품 소재로 삼고 조형작업을 함으로서 현대화 된 사회 속에서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감성을 되살리고 옛 것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鄕愁)를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의 민구류들에서 보여 질수 있는 표현의 다양성을 찾는 조형화 작업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문헌과 답사를 통하여 본 제주의 민구(民具)는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인들의 의(衣), 식(食), 주(主)생활 문화 전반에 걸친 삶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지금의 제주를 있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으로서, 제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 민구류가 가지는 질박하고 자연미가 풍부한 특성들을 조형화시키고 형태의 탐색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표현할 수 있었으며 독창적인 제주만의 향토적이며 정신적인 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셋째, 흙의 가소성(可塑性)과 불의 우연성(偶然性)을 이용하여 제주의 투박하고 강인한 정서와 부합하는 향토적인 색감을 찾아 조형 작업으로 시도해 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민구류의 표현에 있어 제주 서민들의 모습으로 토우가 표현되어지는 개념은 옛날 민구(民具)를 사용하였던 모습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제주인의 삶의 깊이와 본질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의 풍토적 조건, 문화적 전통, 사상적 배경 등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업 과정 중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제주 민구류’가 가지는 의미로, 서민들의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도구(道具) 전부를 총망라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범주였다. 또한 조각적인 조형 작업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제주 민구류’에서 보여 지는 자연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나뭇대로의 조형방법 등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주 민구류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 기법의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의 작품 제작에서 제주의 향토미, 색상, 형태미를 찾는 작업을 계속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이문원, 「제주 화산도의 지질(地質)과 암석(巖石)」, 도서출판 춘광, 1991
-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3
-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 76, 제주도, 1979
-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 제주민속연구소, 2003
- 제주도, 「제주의민속Ⅳ-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문화자료총서> 4, 1996
- 조성윤·하순애·이상철 공저,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제주의 민속」, <제주도> V, 1998
- 「제주·문화의 이해」, 제주, 제주도, 2004
-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 제주시교육청, 장학자료('91-Ⅳ), 2001
-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2)」, 열화당, 1981
- 한국민속문화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민족문화사, 1991
- 고복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1989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김영돈·고광민 공저,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1998
- 김 지순, 「제주도 음식문화」, 제주문화, 2001
- 고광민, 「제주인의 삶과 돌」, <제주학> 제3호, 1999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2004
- 고광민, 「어구(漁具)」, 도서출판 각, 2002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1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 김원룡, 「한국미의 연구」, 열화당, 1978
- 이윤형·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고광민, 「제주인의 삶과 돌」, <제주학> 3, 제주학연구소, 1999

강창언, 「제주옹기와 제주자기」, 2002

문화예술자료/ 「德修里불미工藝」, 문화재청

전통문화의 이해/ 「한국 전통의 가마솥」, 2005

이훈중, 「민족생활사전」, 한길사, 1992

우리문화찾기/ 「한국의 민속공예」

정동훈, 「현대도자예술」, 디자인하우스, 1995

